

사진의 존재 이유에 답하다

윤현기 '사진사의 사진사'
28일 서학동 사진관에서 개최

윤현기 사진전 '사진사의 사진사(寫眞師의 寫眞史)'가 28일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 사진관에서 개막한다.

윤현기(72)씨가 운영하는 미화사진관의 역사는 아버지가 개관한 이래 50년이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전주 경기전에서 사진관을 하던 일본인에게 어깨너머로 사진을 배웠다.

담대 경제적 여유가 있는 특권층 위주의 초상 사진을 바탕으로 광복 이후 증명사진으로 이어지는 초상 사진의 보편화에서는 사진관이 기능을 담당한 초상 사진의 맥을 유추할 수 있다.

미화사진관을 개업한 윤씨는 흑백사진이 주류였던 초상사진을 컬러사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초'를 배우게 됐다. 확대기로 키운 사진 이미지의 외곽선을 따거나 외곽선이 나올만큼의 노출로 인화를 한다. 이렇게 나온 사진에 물감으로 얼굴의 피부톤을 재현하고 옷의 색감을 결정했다. 컬러사진이 등장하기 전 초상화를 회화와 사진이 서로의 경계에서 '사초'라는 장르를 만든 셈이다.

시작은 흑백이다. 사진을 찍으면 암실에 들어가 현상과 인화를 하고 빠르면 그날, 일이 많은 날이면 다음날 사진을 전달 할 수 있었다. 촬영과 현상, 인화는 미화사진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관에 와야 했고 결혼과 회갑 등 기록이 필요한 일에는 사진사가 필요했다. 마을에 하나씩 있던 사진관은 주변의 이벤트로부터 꼭 있어야 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좋은 시절이었다.

카메라가 대거 보급되며 마을의 작은 사진관은 기능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에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비디오카메라의 출현, 사진관의 명맥을 유지하는 좋은 매체였다. 사진사를 통해 결혼식과 회갑연 영상 제작



윤현기 사진전 '사진사의 사진사'가 28일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 사진관에서 개막한다.

문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사진의 대중화와 높은 보급률로 사진사들의 입지는 좁아졌다. 마을 잔치들 역시 이전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결혼식은 지정된 결혼식장의 사진사들이 해결했다. 마을을 넘어, 사진관 넘어 다른 공간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렇게 맞이한 IMF 외환위기 이후 주변의 사진관들도 대거 폐업을 하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디지털 사진이 나타났다. 시기와 시기를 넘을 때마다 사진은 늘 새로운 방식을 요구했다. 이제는 새로운 흐름에 따라가기에 지쳤다고 생각했다.

포기를 결심할 즈음 아들은 아버지에게 포토샵을 소개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주변 사

진관들을 찾아가 관련 내용을 물었고 또 다시 연습과 연습을 거쳐 디지털 사진술을 완성할 수 있었다. 컴퓨터를 다루지 못했던 그가 컴퓨터를 통해 이미지를 수정하고 사진을 출력했다.

윤현기라는 개인의 삶을 통해 50년 넘는 세월 동안 한 자리에서 사진관을 운영한 '사진사의 사진사'를 둘러볼 수 있다. 그의 삶 흔적들을 재현한다. 흑사진, 사초, 컬러사진, 비디오카메라의 영상시대, 그리고 작금의 컴퓨터 만능시대를 이 한 명의 사진사를 통해 볼 수 있다.

'사진사의 사진사'는 12월30일까지 계속된다. 작가와의 대화는 12월8일 오후 3시다. 월·화요일은 휴관한다. /뉴스

'일상에 쌓인 스트레스 확 풀어드려요'

28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악단광칠 미치고 팔짝 콘서트 공연

남원시는 문화가 있는 날 11월 문화행사로 '악단광칠 미치고 팔짝 콘서트' 공연을 오는 28일 수요일 저녁 7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곳곳 같은 수상하고 수상한 유랑악단 콘서트는 기존 전통음악이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흥겹고 신나는 무대를 선사해, 자연스럽게 들쭉거리게 만드는 음악으로 일상에 쌓인 모든 스트레스를 확 풀어주고 공연을 통해 삶에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감동의 무대가 될 것이다.

공연은 2018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남원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악단광칠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으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누구나 관람이 가능한 무료공연으로 공연 당일 30분 전부터 입장하면 되고,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620-6152) 또는 남원시청 홈페이지(www.namwon.go.kr) 공연/행사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은 문화예술과 (☎620-6152) 또는 남원시청 홈페이지(www.namwon.go.kr) 공연/행사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오케스트라 자료사진.

순창군, '우리가 만드는 하모니' 오케스트라

순창군이 오늘 향토회관에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선율을 군민들에게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만드는 하모니'라는 주제로 순창군과 사단법인 드림필(지휘자 김재원)이 공동 주관한다.

공연은 김재원의 지휘로 테너 박진철과 조창배, 소프라노 고은영과 오현정이 출연해 피가로의 결혼, 10월의 어느 멋진날에 등 주옥같은 명곡을 들려준다.

특히 기존 오케스트라 공연이 관람위주였다

면 이번 공연은 관내 음악동호회인 소리울 색소폰앙상블과 풀잎사랑오카리나 앙상블이 참여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노홍균 문화예술계장은 "가을밤 정취에 어울리는 오케스트라 음악과 관내 동호회가 함께하는 공연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6월에도 쌍치초등학교와 북홍초등학교를 찾아 소외지역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부안장애인복지관, 시화전 열어... '글과 그림이 있는 마을'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춘섭)은 지난 20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제1회 시화전 '글과 그림이 있는 마을'의 오픈 행사를 가졌다.

'글과 그림이 있는 마을'은 장애인의 문화 예술을 통한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한글반과 미술반 수강생이 한 해동안 준비한 시화전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후원으로 성인 장애인 30여명에게 3회 전문 강사의 한글과 미술교육 등을 포함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번 시화전은 그간 받아온 교육을 통해 창작한 시와 미술작품들이 첫 선을 보이는 자리

로, 전시장에는 30점의 회화와 시를 비롯해 전북 미술대전에서 수상한 미술작품 등이 전시됐다.

오픈 행사에는 석정문화관 고순복 국장을 비롯해 김순애, 박선진, 지인상 등 장애인 미술작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병구의 일기'라는 시를 선보인 지적장애 2급 김병구(41) 이용자는 "지난 일년 간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라며 "전시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이춘섭 관장은 "미술


과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을 통해 재능 있는 장애인들을 진주로 발굴하는 보람을 느낀다"라며 "문화와 미술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먼저 앞장서 나아가는 장애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글과 그림이 있는 마을' 전시는 22일까지 진행되며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작가들의 개인작품과 예코백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작품 판매 수익은 전액 장애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